

4 종합

졸업생 취업률 70.7%,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양현준 기자 yhj1001@khu.ac.kr
황인찬 기자 philip0503@khu.ac.kr

우리학교 2022학년도 전체 취업률이 70.7%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인재센터가 지난달 발간한 '2024 국제캠퍼스 취·창업 통계조사 자료집'에 따르면, 2022년 우리학교 졸업생 취업률은 70.7%였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전 시기 취업률(2018년 68.3%)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으로 2020년에 최저점(66.3%)을 기록한 뒤 반등해 상승을 지속한 결과다.

우리학교 졸업생 취업률은 '전국 대학 졸업생 취업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전국 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2019년 67.7%에서 2020년에는 65.1%까지 하락한 뒤 2021년

67.7%로 반등해 상승을 지속한 바 있다. 서울권 주요 대학도 우리학교의 흐름과 유사하게 등락했으나 구체적 수치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2019~2022년 사이 서울권 주요 대학의 취업률 변동폭은 평균 2.56%p(고려대 3.2%p, 성균관대 2.6%p, 연세대 2.5%p, 중앙대 2.1%p, 한양대 2.4%p)로 우리학교 변동폭(4.4%p)에 비해 낮았다.

미래인재센터 윤종환 계장은 "최근 3년간 우리학교의 취업률 상승은 코로나19 경기회복 효과와 더불어, 신입생 진로 탐색부터 취업을 위한 사회진출 구체화 프로그램까지 대학 생활 주기에 맞는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 덕분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우리학교의 취업률엔 공학계열과 예체능 계열의 취업률 상승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해당 기간 총 6 계열(공학,

서울권 주요대학 취업률 현황(2019~2022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19~2022년 사이 취업률 변동폭
경희대	67.4	66.3	68.9	70.7	4.4%p
고려대 (본교)	73.3	71.6	70.1	70.9	3.2%p
성균관대	78.6	76.0	78.5	76.5	2.6%p
연세대 (본교)	72.5	70.0	71.4	70.9	2.5%p
중앙대 (서울)	72.4	71.3	70.3	72.4	2.1%p
한양대 (본교)	73.8	73.5	71.4	72.5	2.4%p

※출처:2024 국제캠퍼스 취·창업통계조사자료집, 단위(%)

2019~2022년 사이 서울권 주요 대학의 평균 취업률 변동폭은 2.56%p였다.

사회, 예체능, 의약, 인문, 자연) 각각의 상승분을 비교했을 때 공학계열과 예체능 계열의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미래인재센터는 "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의 취업률 상승은 채

용시장 트렌트와 코로나19 상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다.

공학계열 취업률은 2022년 기준 74.3%로 2020년 대비 4.3% 상승했

다. 공학계열 학과 중에서는 기계공학과(21.4%p), 컴퓨터공학과(14.2%p)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예체능계열 취업률은 2022년 기준 68.8%로 2020년 대비 12.5% 증가했으며 체육학과(19.8%p), 산업디자인학과(8.9%p)가 취업률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인재센터는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등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인해 공학계열의 취업률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체능 계열에 관해 "체육대학의 취업률 상승폭이 높은 것은 대면업종의 중요도가 높은 체육분야의 특성상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채용시장이 회복한 결과"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학교는 재학생들을 위해 취·창업스쿨, 맞춤형 자기소개서·면접 지원, AI 역량평가, e-DISC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문과대 학생회 선거
다시 무산, 비대위 지속

김수현 기자 soo2023@khu.ac.kr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서울】문과대 학생회 선거가 입후보자 부재로 다시 무산됐다. 문과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 18일 공고했다.

문과대는 지난 14일, '제56대 문

과대학 정, 부학생회장 선거 공고'를 냈다. 후보 등록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됐지만 입후보자는 없었다.

문과대는 최근 2년 동안 입후보자 없음, 투표율 과반 미달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비대위 체제 선거구는 문과대가 유일하다.

비대위장은 학생회장 권한을 그대로 수행해 형식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공약을 내걸 수 없어 사업 추진의 명분이 없다.

현 문과대 비대위장 김도현(영어영문학 2022) 씨는 "비대위 체제는 대표성과 준비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학과 학생회장 역할과 단과대 비대위장을 동시에 맡고 있어 때로 상충된 입장을 동시에 대변해야 한다"며 "연간 계획, 공약, 간부 준비 등 사전 준비를 할 수 없어 정상적인 입후보를 거친 단과대에 비해 준비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비대위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오던 문과대의 자치회비 논란, 선거 절차 논란, 징계위원회(징계위) 논란 등으로 구성원이 문과대 학생 자치에 질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문과대 비대위장을 맡았던 한은찬(철학 2022) 씨는 "작년 선거 절차 논란 이후로 후보자 검토와 공약 검증 논의가 뜨거워져 출마 진입 장벽이 높아진 점, 비대위 체제 지속으로 후임 양성이 힘들다는 점, 지난해부터 문과대 내부에서 각종 논란이 발생하는 점 등으로 출마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비대위 체제와 문과대 각종 논란은 과도기 단계에서 발

생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히려 학생 자치에 대한 열의가 있기 때문에 대자보가 붙는 등의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낙관적인 점도 언급했다.

윤미지(사학 2022) 씨는 "현재 문과대는 비대위 체제 문제라기보다 문과대 정·부학생회장이 궐위 상태인 문과대 운영위원회나 단과대 내부에서 지속되는 갈등이 원인"이라며 "이로 인한 긴장 상태가 문과대 구성원에게 피로감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비대위 체제에서 학생 복지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빠른 시일 내에 비대위 체제가 종결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롯데장학재단 '취업준비생 장학생 6기' 모집

1.지원자격

1)대상

- ① 언론·미디어 분야(PD/기자/아나운서·리포터)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졸업생
- ② 취준생장학금 기수해자(1~5기) 지원불가
- ③ 우대사항: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학과장 추천서 제출자

2)세부조건

- ① 국내 4~6년제 대학 정규과정 2학기 이상 수료자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 미취업자(기준학기 이상 수료자에 한하여 재학생, 휴학생, 졸업유예/학기수료/졸업예정/초과학기 등 모두 가능)
- ② 성적: 총(평균)평점 기준 3.0/4.5 이상
- ③ 소득분위: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증명가능한 자(0분위~10분위)

2.신청기간 : 2024.05.20(월) 10:00 ~ 2024.05.31(금) 23:59

3.신청방법 : 롯데장학재단 홈페이지-공지사항 (www.lotteloundation.or.kr)

4.선발인원 : 500명 限

5.지원내용

1)장학금(학업보조비) 100만원 + 매일경제e신문 12개월 구독권

- ① 1회 限 /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② 지급일: 2024년 6월 말 개인계좌로 지급 예정

2)현장직무 체험형 프로그램(*200명 별도 선발)

- ① 프로그램: 미디어 산업 관련 교육 및 현장실습, 온라인 멘토링 등 제공
- ② 현직 PD(다큐,예능,라디오 등) 및 기자 등 전문 강사가 교육 진행 예정

6.세부일정

신청기간

5/20~5/31

장학생 선정발표

6/21(금) 예정

장학금 지급

6월 말

직무체험 1차 교육

7~8월

직무체험 2차 교육

9~10월

※위 지원내용 및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일정은 추후 공지예정